

환경오염 유발 공장 10년간 8245개 난립

▶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산자부 국감서

1996년부터 규제완화 미명아래 산집법 25번 뜯어고쳐
이명박 정부 초기 입지기준 고시 법률 반영없이 폐지

최근 주택가 인근 공장 난개발로 인해 유해물질과 소음 등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공장 설립 규제완화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7.9) 레이먼, 이스콘 제조업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 신규등록 현황은 총 8,245건에 이르며, 연 평균 약 840개 가량의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등록 기준에 따른 현황이며,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공장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1996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을 통한 공장설립 승인 건축면적 기준 규제완화(200㎡→500㎡) 이후 승인이 필요 없는 미등록공장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통계청의 전국제조업사업체 수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등록공장 수를 제하는 방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등록되지 않은 공장은 2013년 20만6,558개(등록공장 16만4,058개), 2014년 22만6,040개(등록공장 17만1,131개), 2015년 23만2,818개(등록공장 18만1,031)로 등록공장 수보다 월등히 많다.

한편, 1996년 건축면적 규제완화 이후에도 법률 4건, 시행령 13건, 시행규칙 7건, 고시 1건 등 총 25건의 산집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특히, 2008년 MB정부 초 '정밀절차 간소화'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통해 공장입지기준 고시 제5조(환경오염등을 일으킬 수 있

는 공장의 입지제한)가 법률에 반영 없이 폐지되기도 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좋은 정부는 다 풀어주고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는 것'이라며, 법 안 고치고, 지침, 규정만 고쳐도 많은 규제를 없앨 수 있다'고 장관들에게 고시 폐지 등의 규제완화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시 폐지 직후 이전에는 승인이 나지 않던 김포의 A 레이콘 공장이 설립 승인을 받아 주택가 인근에 들어섰고, 비산먼지와 소음유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사업주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여전히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치임에도,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공장 난립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산업부는 지금까지라도 정확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 설립 시 주민들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등의 산집법 개정, 그리고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 우이동 일대에서 '후백제 유적 추정지 현장 탐방 및 브리핑'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유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장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후백제 역사문화 유적지 체계적 복원 착수

전주시, 후백제 왕성·도성 등 시굴·발굴조사 추진
성곽 등 34개소 신규 발굴... 연차별로 유적 성격 규명

전주시가 1000년 넘도록 역사에서 잊혀온 후백제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나간다. 전주는 900년부터 936년까지 37년간 후백제의 왕도(王都)로서 후삼국시대 격동의 중심지이자 찬란한 역사문화를 펼쳤던 후백제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

시는 후백제의 왕성 및 도성으로 추정되는 노송동 등 전주시 전역에 산재한 후백제 유적을 찾는 정밀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백제 역사유적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후백제 역사유적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발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시는 후백제 왕성으로 알려진 물왕벌 일원, 도성으로 추정되는 동고산성과 남고산성, 오목대 등 약 1,653㎡(500㎡)를 대상으로 후백제 유적을 찾기 위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했으며, 분묘유적과 성곽유적, 건축유적, 생활유적 등 34개소를 신규 발굴했다.

특히, 정밀지표조사 결과 후백제의 왕성은 인봉리 일대(3,265㎡)로 추정

됐으며, 최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전주정묘문화유산진흥원의 동쪽부분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제방시설 하층에서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의 기와 등이 확인돼 왕성과 관련된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남고산성 내의 추정 행궁지의 경우 후백제 때 사용되었던 초석이나 기단석들과 기와들이 수습돼 후백제 시대의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이중저수지 인근 무릉고분군은 인위적으로 만든 대형 분묘형태로 조성돼 있으며, 산 정상부에서는 정연하게 배열된 숲이 발견되었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향후 후백제와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유적인 왜망실의 우이동 와요지에서는 수많은 기와편과 가마벽체편 등이 발견됐고, 네모 형태의 정물편(길이 25cm, 두께 6cm)도 확인되고 있어 후백제 관아시설에 필요한 기와 및 정물 등을 공급했던 지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후백제 왕조의 기반을 조성하고 터전을 마련한 다양한 유적들이 지표상에서 확인되고, 유적이 전주시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서 조사된 유적의 성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현재 후백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향후 후백제 문화유산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이 완성되면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해 후백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 정비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시가 후백제의 왕도(王都)라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유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기초자료가 확보된 만큼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후백제 역사를 재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검찰, 박정부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이번주 배당

검찰이 박근혜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사건과 관련한 배당 절차를 이번주 마무리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주 초·중반에 이를 담당할 검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청은 사안에 따라 수사 부서를 결정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 '화이트리스트'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

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들의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김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활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안보실장 역시 국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사건의 뒷선으로 지목돼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 정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

통령 훈령 318)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 정부가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쳤다 고도 판단했다.

청와대는 조작된 문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대통령 탄핵 공방 벌리 자료로 사용했다고 알렸다.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 등이 임의로 불법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하도록 한 점 등도 문제가 된다고 봤다. /뉴시스

본사 인사

▲이양원
임:부장
명:편집국 순창주재기자
(10월 13일자)

하이트진로

추! 전주매일 창간

hite
EXTRA
COLD
더 시원하다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